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 공관복음서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11월 14일 강의 계획서

갓세마니에서의 기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갓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어지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당신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당신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마르 14,32-36 직역)

4.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힘들어하셨는가?

- (1)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했기에? → 틀린 대답
- (2) 아버와의 단절을 두려워했기에? → 맞는 대답
 - 예수님 죽음의 특징 : 저주 받은 존재, 죄 자체가 되어 죽는 것임
- (3) 악마의 유혹을 받으면서 더욱 번민하시고 공포에 사로 잡혀 계셨다

5. 갓세마니 기도의 영성

- (1) ‘아빠의 뜻’과 ‘내 뜻’(예수님의 뜻)의 대립과 순명
- (2)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의 뜻대로 하십시오.”는 온전한 순종과 자아 포기에서 나오는 말이다
- (3)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의 뜻대로 하십시오.”는 영혼의 고뇌를 실컷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마르 14,41-42)

붙들리시어 연행되심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
다. 그와 함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떼지어 왔다. 그런데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끌고
가라." 하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가 예수께 다가 와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마르
14,43-45)

1. 배반의 입맞춤

- (1) 유다는 왜 열정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입맞춤을 예수님께 했는가?
- (2) 예수님이 붙들렸을 당시 겟세마니 동산의 상황
- (3) 유다의 배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조용히 붙잡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2. 칼을 휘두른 제자

그 때 예수님과 함께 서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
의 깃발을 쳐서 잘라버렸다.(마르 14,47)

- (1) 제자들 중 하나가 대사제 종의 오른쪽 깃발을 잘라버림
 귀: 오우스(οὐς)
 깃발: 오타리온(ὠτάριον)
- (2) 제자들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베드로임
- (3) 칼을 휘둘러 상대의 오른쪽 깃바귀를 자르려면
- (4) 베드로가 칼이 아니라 단도를 사용했다

3.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삼베를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삼베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마르 14,51-52)

- (1)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은 누구인가?
- (2) 사건의 재구성(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견해)

대사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심

1. 대사제(+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으심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 왔다. 베드로는 떨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마르 14,53-59)

(1)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진리를 죽이기 위한 재판

☞ 대사제의 유다 법정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음

(2) 유다 법정의 재판 진행방식

(3) 예수님이 성전파괴를 예고했다는 증인들의 증언은 왜 거짓증언인가?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리오?”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

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마르 14,60-64)

2. 시몬 베드로의 배반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바깥뜰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 없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마르 14,66-72)

- (1) 세 단계에 걸쳐서 이뤄진 베드로의 배반
- (2) 왜 세 번째 배반에서 베드로는 저주와 맹세까지 하게 되었는가?
- (3)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렇게 다른 말을 하게 되었는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마르 8,29)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마르 14,71)

- (4) 베드로의 배반이 모든 복음서들 안에 나오게 된 사연
- (5)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마르 14,66-72)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루카 22,60-62)

(6) 베드로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요소들

- ① 베드로가 배반한 순간 예수님이 자애로운 눈길로 쳐다봐 주심
- ②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바치셨던 기도를 베드로가 기억함

3. 산헤드린이 새벽에 다시 모임(성 금요일 새벽)

새벽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최고
의회를 다시금 소집하여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마르 15,1)

(1) 왜 산헤드린이 또 다시 새벽에 모였는가? 예수님의 죄몹을 바꾸기 위하여
"이 자는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를 누비며
가르침을 퍼트리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루카 23,5)

"이자가 우리 민족을 이간하여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가로막고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 했습니다."(루카 23,2)

(2) 산헤드린은 왜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겼는가?

- 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하느님으로부터 저주 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 ②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지지하는 군중이 두려워서

4. 배반자 유다의 종말(성 금요일 새벽)

새벽이 되자 산헤드린은 다시금 모여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바꾸는
결의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려
하였다. 그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서른 닢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나?
그것은 네 일이다.” 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수석 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이것은 피 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다시 산헤드린을 열어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표지로 쓰기로 하였다...(마태 27,1-10)

- (1) 유다가 심경을 바꾼 이유
- (2) 유다 생의 마지막 모습
 - ① 뉘우치며 은전 30냥을 돌려주려 함
 - ②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의 의미
 - ③ 스스로에게 율법 규정을 적용해서 유다가 자살해 버림
- (3) 유다가 생각한 정의: 구약에 머무는 정의
- (4) 유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루카 23,34)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으심

0.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의 시간별 보도

- 성금요일 오전 6시 “아침이 되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마르 15,1)
- 성금요일 오전 9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마르 15,25)
- 성금요일 정오 “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시까지 계속되었다”(마르 15,33)
- 성금요일 오후 3시 “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마르 15,34)
- 성금요일 오후 6시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마르 15,42)

1. 빌라도의 법정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하고 묻자, 그분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마르 15,1-2)

- (1) 빌라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기원후 26-36년)
- (2) 빌라도의 첫 질문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3) 빌라도는 재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무죄를 어떻게 알았는가?

2. 빌라도의 초상

(1) 비극적 인물 빌라도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게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요한 19,11)

(2) 그가 예수님을 '거의' 풀어줄 뻔한 이유들

"그러자 군중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그들의 소리는 갈수록 거세어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루카 23,23-24).

(3) 빌라도가 경청해야 했던 또 다른 세 종류의 목소리들

① 예수님의 침묵의 목소리

②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Claudia Procula)의 목소리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요.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마태 27,19).

③ 자기 양심의 목소리

(4) 사실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십자가의 길(성금요일 오전)

1. 채찍질과 수모를 당하심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매질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넘겨주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인 궁전 뜰 안으로 끌고 가서 전 부대를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그분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어서 씌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 만세" 하며 짐짓 인사를 했다 또한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고 치을 뺄으며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분을 조롱하고
나서 자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걸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 데리고 나갔다 (마르 15,15-20).

(1) 십자가에서 처형될 사형수를 위한 첫 번째 집행은 매질하는 것

(2)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셨을까?

2. 예수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몇 가지 정보들

(1) 당시 십자가의 세 가지 유형

crux immissa(전통적인 십자가)

crux commissa(일명 타우 십자가)

crux decussata(일명 안드레아 사도의 십자가)

(2) 십자가 사형이 극형인 이유

(3) 십자가는 언제부터 기도와 예술의 중심이 되었을까?